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너무 먼 전시장



박영택 <경기대 예술대학 교수>

최근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미술 전시회에 가본 사람은 1997년도 기준...

최근 조사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미술 전시회에 가본 사람은 1997년도 기준...

의 중요한 역할이 과시적 소비를 통한 다른 계층과의 '구별짓기'의 중요한 수단으로...

미술은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이다. 그림 돈 있는 이들은 왜 미술을 익히려고 하는가?

전시장 어디있다?

그러나 먼저 그림 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림 앞에 오래도록 서서 음미하고...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얽여 나온다. 그런 책들이 미술체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스스로 깨닫고 체득하는 노력을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미술의 경험과 교육은 좀 다르다. 오리지널 그림을 보려면 화랑이나 미술관에 직접 가야한다.

남의 안목과 감각을 날로 먹을 수는 없다. 미술을 진정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체득하는 다소...

그러나 가까운 전시장에 가서 그림 앞에 서볼 일이다. 일단 말을 지우고 몸으로 말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무안국제공항 개항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무안국제공항은 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나주혁신도시 등 전남지역 전략사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J프로젝트 등 서남권지역 전략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무안국제공항은 그동안 경제성 논란으로 개항이 3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오는 2010년도 예상 이용객이 연간 200만명으로 수송 규모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무안국제공항은 그동안 경제성 논란으로 개항이 3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오는 2010년도 예상 이용객이 연간 200만명으로 수송 규모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 닫아놓고 찾는 손님이 없다면 '동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지자체의 지원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가계발 금융위기 '경고음' 심상치 않다

일반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을 웃돌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 경제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3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가용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지난해 142%에 달했다.

전반이 밝은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금리 여건이 좋지 않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를세를 타며 뛰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부채 상환 압력을 받는 서민들은 주택이나 토지 등 신탁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값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부채 상환 압력을 받는 서민들은 주택이나 토지 등 신탁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값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안상공회의소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상공회의소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2.3%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 발 금융위기의 '경고음'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까지 오르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오늘날 암질환은 선진국을 포함해 발병률 및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현대병으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최희석

그러나 불행히 오늘날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아 암은 아직도 불치병, 난치병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현대의학에서 암은 난치(難治)일 뿐 아니라 대체요법이나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등의 요인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위의 원인을 참조로 적용할 수 있는 암 예방의 생활습관과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질환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암 예방 조기검진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발생 인구의 1/3은 예방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 암의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암의 조기진단과 그 치료가 아직까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암으로, 기관지 천식을 10여년 앓은 질환자가 다른 부위에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환자 되는 경우는 바이러스성 암을 제외하고 극히 드물다. 대부분 수년이상 질병을 앓아오다가 견디지 못한 상태에서 발암이 이루어지고 발전된다.

자녀에게 올바른 소비생활·방법 교육 필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명품 선호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외국 유명상품 신발이나, 가방, 액세서리같은 이른바 명품을 사들이는 것, 어른들의 무분별한 사치품 소비 풍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나쁜 해악으로 전염된 것이다.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명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고, 수중에 돈이 별로 없는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떼를 쓴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학생들 돈을 훔치는 이른바 학교폭력 이 생기는 것이다. 명품에 대한 선호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규모에 맞게 생활하고,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줄 아는 올바른 소비생활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절실하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기고



남상창

5월은 낮선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처럼 가슴 설레는 계절이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애칭처럼 남도 들녘에는 온갖 꽃들이 만개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

에 싸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비취뿔 보석처럼 반짝인 크고 작은 섬마다 간직한 드넓은 해수욕장도 곳곳에 널려 있다. 절묘한 자연절경과 기암괴석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남도는 축제의 고장

그 곳에는 역동적인 힘으로 빛어내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담양 대나무 축제를 비롯해 장흥 키조개, 보성 다향제, 장성 홍길동, 완도 장보고 축제 등이 펼쳐지고 있거나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족이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남도를 한번쯤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토끼풀 꽃받치 끼고 시냇가 버들피리 띄워 부던 고향의 향수가 찾아올 것이다.

영어교육 적성에 맞는 효율적 방법 찾아야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 생활영어 강의를 개설했다. 강의는 1주일에 외국인 강사 이틀, 내국인 강사 이틀씩이다. 처음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진행하는 외국인 강사 수업이 무척 당황스러웠다. 나이 40대 중반을 넘겨 예전의 기억을 더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지만 마음먹고 자세히 들어보니 쉬운 단어에, 문장 구조 또한 단순해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한 회화교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양해 못하고 어려운 문법을 가르치니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힘들어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그런 것 아니었을까 싶다. 그런데 한국인 강사가 맡은 다음 강의에서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문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다음 주어와 동사, 수동태 능동태 뒤 이런 얘기들이 이어졌다. 일부 직원들은 졸음 갖고 받아적기에 바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품을 하고 있었다. 교육은 흥미를 가져야 한다. 단 몇 시간의 짧은 체험이었지만 교육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無等鼓

건조한 날씨 속, 잇그제 반가운 봄비가 내렸다. 순간 풍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비였지만, 최고 50mm나 쏟아져 바짝 마른 논밭이 다소나마 해갈됐다. 길거리 우산을 쓴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느릿하고 여유롭다. 사무실 창 밖, 비 내리는 도심 풍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마음도 넉넉하다.

한없이 흐르네... 하지만 이 곡의 멋은 후렴구에 있다. 작곡가 신중현은 드럼과 베이스 기타, 그리고 키보드로 짙은 여운을 남겼다. 전체적인 멜로디가 지독한 쓸쓸함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상청은 봄비가 그치면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맑은 날이 계속되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을 것이라는 예보다. 낮 최고 기온도 예년 수준인 15~22도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모내기를 준비하는 농촌 들녘은 그러나 걱정이 태산이다. 저수지는 바닥을 보이고 모판의 물이 충분치 않기 때문일 게다. 하여, 이런 유쾌한 상상을 소리에 / 마음을 달래도 /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 한없이 흐르네 // 봄비 나를 울려 주는 봄비 / 언제까지 내리러나 / 가슴마저 울려 주네 봄비 /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



<이슬비 내리는 길을 걸으며 /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 마음을 달래도 /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 한없이 흐르네 // 봄비 나를 울려 주는 봄비 / 언제까지 내리러나 / 가슴마저 울려 주네 봄비 /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

은 어떻게? 기상청의 예보가 맞나? 많은 비가 쏟아졌으면 하는 것, 폭우로 학교나 직장이 며칠 쉬었으면 하는 허황나 / 한없이 흐르네 // 봄비 나를 울려 주는 봄비 / 언제까지 내리러나 / 가슴마저 울려 주네 봄비 /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for subscribers and advertisers.